

≡≡≡ 협회 소식 ≡≡≡

◆ 77년 봄세미나 개최

5월 6일 —서울 상지회관에서

금년 本協會春季세미나가 오는 5월 6일 상지회관(서울 돈암동)에서 열리게 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醫療保險」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각 연사의 主題發表가 있는 다음「醫療保險 실시와 醫療機關의 자세」에 대하여 「패널 디스커션」을 가지고 이어서 4시부터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세미나 主題 : 醫療保險

演題 ① 정부의 의료보험 시책

(최수일 보건사회부사회보험국장)

② 의료보험과 의료수가

(김영언 인천도립병원장)

패널 디스커션 : 醫療保險 실시와 의료기관 의사

김영언(인천도립병원장)

조규상(가톨릭의대학장)

조영선(성모병원장)

유철(성모병원의무원장)

◆ 會員擴充 봉사활동 擴大키로

—가톨릭 醫協定總—

4월 2일부터 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 가톨릭의사협회(회장=정일천박사) 제10차 정기총회는 「무료 및 무의촌 진료봉사」를 적극 추진, 가톨릭의사들의 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77년도 활동 방안으로 확정되었다.

서울 대구 부산 마산등지에서 대표회원 30여명이 참가한 이번회의에서는 ①신입회원 적극유치 ②침체 상태에 있는 지부 재건 ③전국적인 조직확대 ④회지발간등을 세부활동으로 설정했다. 총회는 그 밖에도 80년초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아 가톨릭 의사총회에 대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부산지부의 조속한 재건과 4월중 대전지부 설립등을 긴급안건으로 채택 77년도 전반기 사업으로 결의했다. 피정을 겸한 이번 총회의 강론은 홍

인수신부(서울대교구 비서실장)가 담당했다.

한편 서울 가톨릭醫師會도 이날 총회를 갖고 崔漢雄현회장을 유임시키고 신임 총무로 趙進熙씨를 선출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선 무료진료활동 강화와 무의촌 진료 醫大학생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女性會館 20日 竣工

—가톨릭 女性연합회—

「가톨릭」女性연합회(회장 朴愛珠)는 작년에 매입하여 그 동안 改築공사를 해왔던 「가톨릭」 여성회관(서울 中區 筆洞 2街 121의 3)을 완공, 祝聖式을 20일 하오 2시에 가졌다. 한편 서울 「가톨릭」 여성회는 이날 축성식에 이어 총회를 열고 副會長에 김예랑씨를 선출한 후 이사 4명을 새로 선정했다.

◆ 不遇未婚母에 無料分娩—女醫師會

韓國 女子醫師會는 이달부터 未婚母子호 사업을 적극 전개키로 하고 이달 초순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女醫師會는 미혼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청 부녀과 및 홀트아동복지회와 협의를 거쳐 미혼모예방 계몽사업외에 이들 단체의 추천을 받은 불우한 미혼모의 분만 및 사후처치를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다.

◆ 빌링스法지도—수원교구 세미나

수원교구는 빌링스법을 지도·계몽하기 위해 본당 전교수녀와 여회장을 대상으로 26일 성빈센트병원 강당에서 「행복한 가정운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슬라이드를 통한 빌링스법 강의를 했다. 강사는 성빈센트병원 산부인과과장.

◆ 행복한 가정운동 적극 추진키로

春季主教定總 4.11~14

11일에 개막된 주교회의 춘계 총회는 12일부터 「행복한 가정운동」등 미리 준비한 10여개의 의제

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김추기경과 윤공회 대구교를 비롯 전국거의 모든 주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말씀의 집」에서 열린 이번 주교총회는 14일까지 속개됐다. 12일 주교 총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신부들에게 이 운동에 관한 인식을 높여 줄 세미나를 관구별(서울, 대구, 광주)로 10여 차례(신부, 수녀, 지도원 각 1회이상) 갖도록 하자는 의견에 찬동하고 자체 사업비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 성바오로병원—개업의 보수교육

가톨릭의대 부속 성 「바오로」 병원에서는 지난 3월 21일 동대문구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지역사회의학의 일환으로 개업의들에게 새로운 의학 지식의 보급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실시된 강연회는 앞으로도 2개월에 한번씩 쏠 임상과목에 걸쳐 본교 「스텝」들이 강연하게 된다.

≡≡≡의료계 소식≡≡≡

◆ 제 5 회 보건의 날—기념식 市民會館에서

「귀택의 어린이를 예방 접종하여 보호하자」는 標題를 내건 第 5 회 保健의 날 기념식이 지난 7일 市民會館別館에서 崔圭夏국무총리를 비롯 朴承威보사부차관 구자춘 서울시장 「렌킨」 WHO 주한 대표 등 많은 내빈과 保健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의어 保健有功者 叙勳및表彰이 있었는데 국민훈장 동백장을 金鍊珠(대한적십자사)의 2명이 대통령 표창을 이찬세(대한결핵협회고문)의 3명이, 國務總理表彰을 李昇漢(가톨릭의대산재병원장)의 6명이, 보사부장관 감사장과 표창을 고갑석(가족계획연구원)의 20명이 그리고 서울시장 감사장을 현석오(서울시 의약과)의 5명에게 수여되었다. 한편 이날 地方各市道도 별도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달 사업을 전국 적으로 일제히 시작했다.

◆ 保健網확대—崔총리「보건의 날」치사

崔圭夏 국무총리는 7일 제 5 회 「보건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정부는 금년부터 시작된 의료 보호제도를 꾸준히 보완, 개선하면서 그 효과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일선 保健網의 擴大와 무의촌의 해소, 유해식품 및 부정의약품의 근절에 힘쓰는 한편 公害방지와 가족계획사업의 확충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총리는 『사회의 公敵인 不正·不良藥品과 유해식품 등의 추방은 곧 사회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보건·의료인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會員定期 申告—5월 한달 동안

大韓醫學協會는 5월 1일부터 77年度 會員定期申告를 실시기로 하고 定期申告 실시 요령 및 신고서식을 21일자로 各市道醫師會 및 軍陣支部에 示達했다.

이번 실시하는 定期申告의 실시 요령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開業會員은 개업지에 소재하는 소속 醫師會에, 봉직회원은 근무지에 소재하는 소속의 사회에, 비개업회원은 거주지에, 소재하는 소속의 사회에, 각각 신고하며 軍陣醫學會 소속회원은 소속군의무감실 또는 국방부(군군의학회)에 정기신고서(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다.

한편 市道醫師會長은 市區郡醫師會로 부터 접수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確認하고 76年度 협회비 납부회원에 한하여 확인, 6월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한편 醫協은 금년부터 신고서양식을 電算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양식을 개정했는데 이는 會員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 5개 工團病院 설치—保社部 지원 검토

全國 21개 工業團地 중 오는 80년까지 13개 工業團地에 의료시설을 誘致기로 한 바 있는 보사부는 우선 금년도에 5개 工團병원을 설치한다는 계

획아래 內資 25억원과 外資 2천 5백만 달러의 지원 문제를 검토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國民醫療의 계획적 확충 方案의 일환으로 工團 內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동生産性を 향상시키기 위해 工業團地 의료시설 유치 계획을 수립한 보사부는 금년도에 城南 및 朱安(延世醫大), 龜尾(순천향병원), 半月(을지병원), 蔚山(産災병원) 등 5개 工業團地를 선정하고 이 곳에 醫大 및 민간종합병원의 系列병원을 설치키로 했는데 보사부는 이들 5개 工團병원설치자금으로 오는 5월에 2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정하는 동시 1천 1백만 달러의 日本借款과 1천 4백만 달러의 西獨借款등 2천 5백만 달러의 借款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년도 工團병원 설치 자금은 1백 50억원 규모로써 1개 工團에 30억원씩 배정, 융자되는 셈이다.

◆ 醫療保護指定機關—2, 101개소

◇ 전국 醫療保護 의료기관 指定현황

	총 계	1차기관	2차기관	3차기관
계	2, 101	1, 947(861)	143(45)	11
서울	127	105(93)	19	3
부산	63	58(49)	4	1
경기	336	324(144)	12	
강원	170	161(76)	9	
충북	145	142(53)	3	
충남	304	275(128)	27(19)	2
전북	180	170(74)	9(1)	1
전남	287	252(136)	33(20)	2
경북	204	188(26)	15(3)	1
경남	252	243(67)	8(1)	1
제주	33	29(15)	4(1)	

지난 9일 현재 醫療保護 지정 醫療機關은 1차진료기관이 1천 9백 47개소, 2차진료기관은 1백 43개소,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등 모두 2천 1백 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保社部의 집계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1차 기관은 民間醫院 93개소를 포함하여 1백 5개소, 2차 기관이 民間病院 12개소로 포함하여 19개소, 그리고 3차기관은 3개소로 나타났다.

◆ 課稅所得額서 공제

「醫療保護」치료비 全額

財務部는 의료보호 指定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稅制上의 혜택을 주는 방안장구를 요망한 保社部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혀왔다.

財務部는 이 회신을 통해 醫療保護 지정 個人醫療機關은 所得稅法施行令 제60조 1항16호의2 規定에 의거, 의료보호환자 치료비 收入金을 必要經費로 계상하여 課稅所得金額에서 공제하고 法人體의 의료기관의 경우, 法人稅法施行令 제12조 2항13호 規定에 의거, 損費로 계상, 공제받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혀왔다.

이로서 醫療保護사업에 따른 民間醫療機關의 환자치료비 수입금과 醫療奉仕사업에 의한 환자치료비 收入金은 모두 課稅所得金額에서 공제받게 되었다.

◆ 限外麻藥 판매규제—5월부터

마약 성분이 함유된 한의 마약의 자유 판매제가 5월부터 규제된다.

보사부는 12일 개정 마약법에 따른 마약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법제처심의회에 돌렸는데 이를 곧 확정, 5월 중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 규칙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 판매업자가 개정 마약법에 따라 판매 규제되는 한의 마약의 판매량을 하루에 수요자 1인당 2일분까지로 제한하고 판매장부 기재 내용도 수요자의 주소·성명·날인과 판매 약품의 이름·수량·단위 및 판매 일자등으로 규정했다.

◆ 醫療人 5百여명 쿠웨이트에 파견

「쿠웨이트」정부가 금년말까지 완공될 병상 6백개 규모의 종합 병원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요원 파견을 최근 요청함에 따라 연말까지 5백여명의 의료진이 「쿠웨이트」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사부와 해외 개발공사에 따르면 「쿠웨이트」에 새로 세워지는 종합병원은 6백 「베드」 규모로 「쿠웨이트」정부는 이를 우리나라 의료진이 운

영해주고 간호학교도 양국정부의 공동투자로 설립 하자고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 가톨릭 중앙의료원 개원 기념행사

—의대 개교 23주년, 성모병원 개원 42주년

가톨릭의대 개교 23주년 및 성모병원 개원 42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5월 3일 MBC문화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기념행사는 농구대회, 배구대회에 이며 오후에는 기념식을 가지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이 있고 배구대회, 가장행렬 경영대회등이 진행된다.

한편 5월 8일에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로 의과대학 및 각 부속병원대항 친선 테니스 대회를 「첼릭스」구장에서 개최한다.

◆ 지역사회 종합 의학센터 설립

—가톨릭 중앙 의료원—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추진해오던 “지역사회 중

합학의센터” 설립계획이 구체화되어 그 부지를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으로 선정하고 오는 6월에 착공하게 된다. 이 센터는 교육과 연구시설을 한곳에 집약시켜 바람직한 의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지역사회 의학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 ◎ 지역사회를 위한 전문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
- ◎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본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종합의료시설지구로 3만 4천평 부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76년 11월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먼저 500베드 규모의 병원을 착공 78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학교와 연구소들의 시설은 80년대까지 완성할 계획인데 시설규모는 대략 아래와 같다.

· 병원(10층) · 병동(500베드) · 의과대학 ·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연구소 · 강당 · 간호학교 · 기숙사 교회 · 동물사 · 기계실 · 주차장

